

코로나 극복 민·관·군·경 손 맞잡아

제주도, 어제 '2020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경찰은 신속대응팀 구성해 위치·소재 파악
 교육청, 17억원 투입 학교별 방역 물품 확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군·경'이 손을 잡았다. 제주도는 27일 도청 삼다홀에서 '2020년 제주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진규상 해병대 제9여단장, 국정원 제주지부장,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 장철 379군 사안보지원부대장, 노순천 제주교도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 '코로나19 대응 방안 발표'가 있었는데, 제주도와 경찰, 교육청의 방안만 공개하고, 나머지 기관은 보안상의 이

유로 공개가 되지 않았다. 먼저 경찰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지휘관·참모가 항시 1시간 이내 위치에서 근무하는 '경계 강화'를 발동한 상태에서 주요 기능(경무·생안·수사·사이버·경비교통·외사)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다. 또한 지난달 28일부터 제주국제공항 검역소에 경찰관 2명을 파견했고,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경찰관료수련원(37실)을 비워둔 상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소재불명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구성했

는데, 현재까지 2건의 위치 확인과 2건의 소재 확인을 완료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코로나19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경찰관 4명을 전담 요원으로 지정해 현재 4건의 가짜뉴스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예산 17억3800만원을 투입해 학교별 긴급 방역 물품을 확보하고 있다. 또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중국 여행자, 확진자·자가격리자의 가족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율보호 조치를 벌이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27일부터 선별진료소 7개소(제주대·한라·한

국·중앙·한마음·서귀포의료원·서귀포열린병원)에서만 이뤄진 검체 채취를 도내 보건소 6개소에서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총 610건의 검체를 채취, 하루 평균 21.7건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제주 1번 환자(22-해군 상병)가 발생했을 때는 하루 동안 148건의 검체 검사가 이뤄지는 등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검체를 채취해 실질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과 시설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2개소 6명(연구관 1명·연구사 3명·공무직 2명)으로, 1일 최대 70명의 검사가 가능했지만 27일부터는 검사 지원 예비인력 4명(해양수산연구원 2명·동물위생시험소 2명)이 투입해 1일 최대 100명의 검사를 소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진단 분석 장비인 '유전자 추출기'를 1대 추가 구입했으며, 감염증 시약과 검사 키트 500명분도 확보한 상태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기관별 긴밀한 협력 현황도 공유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만감류, 특산물 안주 말고 품질 높여야"

타지역 만감류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만감류가 '제주도만의 특산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앙청과 고길석 이사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27일 발간한 책자 '2020 제주감귤·과수 전망'에 수록된 '2019 과일 유통 특성 및 향후 산지 대응방안'에서 이



출하를 위해 작업중인 레드향. 한리일보DB

2020 제주 감귤·과수 전망' 제주도농업기술원 책자 발간을 생산량 전년비 감소 예상 '소비자니즈 맞는 상품 질실'

같이 밝히며 "만감류가 구경 선물용 수요 증가 추세이지만 조기 수확에 따른 당산비가 좋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싼 맛'보다 '비싸도 좋은 품질'의 과일을 선호하고 있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 개발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올해 감귤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 전망도 제기됐다. 제주도농기원 김창윤 기술팀장은 "지난해 비교적 덜 달렸던 산복지역은 개화량이 많고, 산남지역은 대체적으로 개화량이 적을 전망"이라면서 전체적으로 2019

년산 감귤생산량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2-3월 기상 변화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기상상태가 지속될 경우 조기 발아 및 개화가 우려된다"면서 예방을 위해 전정시기 조절을 강조했다.

정대천 농업기술원장은 "지난해와 같은 감귤가격 하락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품질향상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도 품종개발, 기술지도 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농기원은 당초 2월 개최 예정이던 '제주 감귤·과수전망 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2020 제주 감귤·과수전망' 책자(1000부)를 발간했다. 책자는 농업인과 농감협 등 유관기관에 배부되며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ejuh@ihalla.com



27일 오전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코로나 19확산 가능성은 소재파악 안된 신천지 교인 12명 '변수'

신천지에수교 대구교회 교인 1848명중 절반 감염
 27일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명(제주 1번(22-해군 상병)·2번(22-여·호텔 직원))으로 이들에 의한 2차감염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코로나19는 안정화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됐다. 하지만 제주도에 신천지 예수교 교인 646명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유증상자는 36명(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확인됐고 이중 3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도내 신천지 교인 12명에 대한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어 이들에 의한 2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코로나19 검사 받은 신천지 예수교 대구교회 교인 1848명 가운데 833명(누적 확진자 수)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내 전화 문진자 603명 중 대구·경북 방문 이력이 있는 교인은 2명으

로 모두 무증상자로 나타났으나 소재불명 교인 가운데 유증상자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신천지 예수교 교인 명단이 '제주 1차'라고 표시돼 있어 지역별 인구비율을 감안했을 경우 신도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는 신천지 교회 교인을 20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 연락이 닿지 않은 나머지 신도 12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들어갔다. 또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을 통한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버스업체에는 1회 운행 후 차량 소독을 하도록 하고, 버스 정류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주요 정류소에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을 요청하는 안내문(1000매)을 부착했으며, 버스 내부 방송 및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안전한 택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등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강력한 예방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 전수조사 중 제주 거주자인 경우 중대본으로부터 제주로 통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명단을 신속하게 확보할 계획"이라며 "현재 무증상자 교인에 대해서는 향후 2주간 하루 2회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코로나 여파로 노인 일자리 1만개 중단

도, 27일부터 사업 일시 중단
 코로나19로 인해 1만명 넘게 참여하는 제주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이 멈췄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일

시적으로 중단 또는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27일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배정인원은 1만1350명(제주시 6810명·서귀포시

4540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 일시중단으로 인해 노인 급여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근로일수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민 접촉이 없는 실외활동이나 경로당 봉사활동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상 추진할 방침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하기**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가 이용 권고**
*선별진료소 연호: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1